

청렴치 않다 53%

비상회의, ‘교단공직자 청구제정 위한 설문’ 결과 부패방지 기구 ‘필요하다’ 85.2%

불자들의 절반 이상(53.3%)은 교단공직자들이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중 9명의 불자들은 ‘공직청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청정교단수호 부패근절 비상회의(공동대표 수경·손안식·박광서, 이하 비상회의)가 지난 6월 13~30일 전국의 사부대중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됐다. 설문은 조계종 등록사찰 1500곳과 재가불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로 진행했으며, 조사에 응한 사람은 230명이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교단 공직자의 공직수행상의 청렴도를 묻는 질문에 ‘청렴하지 않다’(34.1%), ‘매우 청렴하지 않다’(19.2%)고 답해 ‘매우청렴+청렴’(13.6%)

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또 공직청규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2.2%가 ‘필요하다(매우필요+필요)’고 응답했으나 ‘불필요+전혀 불필요’는 6.9%에 불과했다.

공직자의 청렴생활이 필요한 분야로는 ‘골프 등 위화감 조성금지’(26.8%)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재임 중 개인명의 통장 규제’(20.8%), ‘고급승용차의 규제’(20.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해서는 ‘재정의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32.4%), ‘특혜의 배제’(20.4%)가 가장 중요하며, 공직자의 부당이득을 금하기 위해서는 ‘이권개입금지’(36.1%), ‘공용물의 사적 사용이나 수익금지’(23.8%)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의장터 펼쳐 10월 9일, 공주 갑사 개산대제

공주 계룡산 갑사가 개산대제를 시작으로 10월 한 달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개산대제는 ‘천년의 산울림’을 주제로 10월 9일 오전 9시 갑사 부도전에서 열린다. 이날 개산대제에서는 영산재가 시연된다.

10월 22일에는 오전 11시 갑사 표충원에서 ‘제6회 기허당 영구대사 추모행사’가 진행되며,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먼저 산사음악회가 열리기 전인 10월 9일부터는 보장각 특별전시관에서 ‘갑사 부처님 복장물 특별 전시회 및 성보 탁본 전시 행사’가 30일까지 계속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삼천년의 미소’를 주제로 한 ‘성효스님 연꽃사진 전시회’와 ‘신진호 작가의 서양화 그림 전시회’가 경내에서 개최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갑사가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기관인 대전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이 만든 음식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회향하는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장터’도 열린다. (041)857-8981 한명우 기자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재검토”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문광부 국감서 주장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9월 22일 진행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케이블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를 무시하며 난개발을 강행한 대표적 사례”라며 “공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투입된 국고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륵산은 정상 등산까지 1시간가량만 소요되는 낮은 산이고 △조계종이 3회에 걸쳐 반대공문을 보내고 8월

23일 최종불허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공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주민 찬성률이 83%만 되고는 하나, 13만 3900명의 24.6%인 3만 3000여명이 참가하여 던진 찬성표(2만 7000표)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확한 진위를 파악한 뒤 사업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철주 기자



글·사진=혜철 대전총복지사장

지역단체와 연계 국민운동으로

계룡산 살리기 불교연대 출범

불교성지 계룡산을 살리기 위해 충남지역 불교계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계룡산 살리기 대전·충남 불교연대’(상임대표 장곡, 이하 계룡산 불교연대)는 9월 20일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열린 창립 기자회견에서 계룡산 불교연대 상임대표 장곡 스님(공주 갑사 주지)은 “최근 정부가 북한산과 천성산의 과오를 반문교사로 삼지 못

하고 또 다시 호남고속철 공사를 통해 계룡산을 훼손하려 하고있다”며 “지역 불교계는 연대모임을 통해 힘을 모으고 향후 계룡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곡 스님은 이어 △계룡산을 훼손하는 어떤 개발사업도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되며 △호남고속철 노선 확정 이전에 진행되는 모든 행정절차의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호남고속철 노선확정 전에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갈등의 불씨를 잠재울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월정사, 재난극복 영산대제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일한

평창 월정사주지 정님은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경내에서 ‘2014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및 강원지역 재난극복 기원 영산대제’를 봉행한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는 제2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프로그램 일환으로 열리는 영산대제는 월정사 회주 현해스님의 증명 아래 법교, 법패, 기원무 공연, 영산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월정사 주지 정님 스님은 “매주 반복되는 수해나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의 안녕과 주민들의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2014년 동계올림픽을 평창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산대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고운사, 노인요양시설 건립 9월 23일 기공식 봉행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에 의성군 최초의 군립 실비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된다. 경북 의성군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게 될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고운사 산문 옆(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22번지)에 짓기로 하고 9월 23일 기공식을 거행했다.

기공식에서 고운사 주지 해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군과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게 돼 이례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최고의 노인요양시설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총 1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80평 건물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5월 말 완공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포교사단 8재계수계법회

10월 8~9일 해인사서

전국의 조계종 포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조계종 포교사단 8재계수계실천대회’가 10월 8~9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다. 팔재계는 팔관재계라고도 하며, 재가자가 하루 동안 출가자가 되어 계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법전 스님의 증명아래 지관 스님이 전계대화상으로 나서며, 종진 스님이 갈마아사리를, 해능 스님이 교수아사리를 맡는다.

이번 대회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지계실천 교육을 받은 후 8재계 실천항목을 108배하며 사경, 독송하고 연비를 한 뒤 새벽까지 철야정진을 한다. 또 10월 9일에는 해인사의 목조 비로자나불상과 복장물을

참여불교, 종교편향 금지법 제안

경상남도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 13~14일 치러진 ‘2005년 경남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에서 스님을 비하하는 문항이 출제된 것과 관련, 경상남도 고영진 교육감이 9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공식 사과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과 사회부장 정님 스님 등을 만나 “스님과 불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또 “관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교육계에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과 비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은 “없는 속담까지 만들어 가면서 불교를 비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교육 공직자들이 종교를 비방하고 종교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만드는 일로써 향후 철저한 자기반성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대표 혜총)는 9월 21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현장의 종교편향을 뿌리 뽑기 위한 법 제정 등을 제언했다.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임대표 혜총 스님은 “종교편향적 교육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향후 종교 편향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교 편향 금지법 제안, 법안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유철주 기자

성명서

현문스님 사퇴를 위한 단식정진에 들어가며

승가의 가치는 화합상생입니다.

그리고 이 화합상생은 대중적 공의 수렴이라는 불가 전통의 민주적 과정에 의해 창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나라 전체의 민주 발전을 선도하는 정신적 귀의처가 되기도 하였습니니다. 하지만 영축총림은 지난 4년 세월을 대중적 공의의 수렴과정이 생략된채 몇몇스님들에 의해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행정진 보다는 이권에 익숙한 몇몇에 의해 승가의 화합은 멀어져 갔습니다.

이와 같은 통도사의 상황에서 지난 8월 22일 제3차 산중총회는 지난날의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을 채울 수 있는 불보살의 가피의 장이 되는 듯 했습니다. 대중들은 환희의 박수를 쳤으며, 이제는 지난날의 불신과 반목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이에 총림대중들은 9월 6일 현문스님이 주지 임기 만료에 따라 깨끗이 물러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후 대중적 공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지직무대행을 선출하여 전 대중이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중앙총회에서 방장 인준을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산중총회 다음날 네분(조우스님, 성파스님, 현문스님, 산옹스님)의 스님이 모여 여타 대중과의 일연 반구 의는 없이 현문스님의 재임추천서(직무대행 추천서가 아님)가 작성되었습니다.

현문스님은 그 재임추천서를 가지고 직무대행 임명장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역사의 퇴행이며 모든 것이 양명해져 가는 이시대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통도사의 젊은 스님들은「통도사 젊은 승가회」를 결성하여 3일간 참회정진을 통해 현문 주지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직무대행 스님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어떠한 해명도 없이 「통도사 젊은 승가회」를 특정 문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불순한 집단으로 호도하며, 자기모순을 옹호하고 또 다른 밀실 정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통도사 젊은 승가회」대중들은 우리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우리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천명하기 위해 **철일 참회정진과 무기한 단식 정진(단식스님: 진각, 현덕, 혜원)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지금의 문제를 문중 갈등으로 호도하는 저들의 물범치함에 속지 말고 화합 상생을 위한 환골탈퇴의 여법한 정진으로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 밀실에서 만들어진 현 주지 직무대행 스님은 즉각 사퇴하라.
- 밀실정치에 동참한 네 분 스님은 대중 앞에 참회하라.
- 통도사의 대중 공의를 일면서도 임명장을 발부한 총무원은 더이상 통도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불기 2549년 9월 21일

통도사 젊은 승가회